

목포시 '미래 먹거리산업' 주춧돌 놓는다

신재생에너지·수산식품 두 축
김종식 시장, 모든 역량 집중
풍력 지원 부두·배후단지 조성
국가 4차 항만계획 포함 청신호
수산식품 수출단지도 본격 추진

목포시가 2020년 시정의 역점사업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 기반조성'을 꼽았다. 향후 30년 목포의 미래 먹거리를 좌우할 산업의 주춧돌 놓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선 7기 출범 초부터 김종식 목포시장은 지금까지 목포경제를 떠받쳐온 '선장과 조선경기' 의존 일반도에서 벗어나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수산식품' 두 축으로 순환해나간다고 역설해왔다.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목포를 먹여 살릴 테마는 '관광+신재생 에너지, 수산식품'이라는 게 김 시장의 신념이자 시정철학이다. 올 한해 '낭만항구 목포' 브랜드를 앞세

워 맛의 도시 선포, 슬로시티 목포, 목포가 페스티벌 등 관광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만큼, 내년부터는 목포 미래 먹거리 산업 기반조성에 힘을 실으면서 대외적으로 민선 7기 후반기를 이끌어갈 정책기조로 삼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달 6일 목포 신항과 대양산단이 국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지정 발표됐다. 이 과정에서 김 시장이 연초부터 공을 들여 무에서 유를 창조한 '꽤'가 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사회에 화제가 됐다. 이와 맞물려 목포 신항에 해상풍력 지원 부두와 배후단지 조성사업에도 서광이 비치고 있다. 당초 목포시는 이 사업을 국가 4차 항만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줄곧 건의해 왔지만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김 시장은 김영록 전남지사를 면담하고 해상풍력산업은 전남도의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의 첫 번째이자 '전남형 일자리' 창출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력 어필했다.

또 기재부 장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는 이 사업을 건의사항에 집어넣어 적극적으로 호소할 게 주요했다. 해수부를 설득하는 데는 박지연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손을 빌렸다. 김종 목포시 해양항만과장은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조만간 반가운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긍정적 시그널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지원 부두 건설과 배후단지 조성은 4차 항만계획에 포함되면 민자가 아닌 국가사업 즉 정부 예산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해경 서부정비장'을 뛰어넘는 막강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국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에 이어 이번 '해상풍력 지원 부두와 배후단지 조성'에도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위상을 확고하게 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시장을 지칭하는 수식어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국가 4차 항만계획에 포함되면 목포 지역 경제를 넘어 전남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전

국 최대의 '전남형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게 시장 안팎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김 시장은 본격적인 미래 전략산업 주춧돌을 놓기 위해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 먹거리 산업 분야에 탁월한 '젊은 피'를 수혈해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선제 대비하려는 뜻을 내비쳤다. 시 조직 내 전담부서가 없는 점을 감안해 조직개편 시 관련 인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목포시 인사 관계자는 조만간 신재생 에너지와 수산식품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하는 채용공고나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목포 미래 먹거리 산업의 또 다른 축인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김 시장은 100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서도 특유의 수완을 발휘해 이낙연 총리를 만나 직접 설득한 끝에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확정하는데 이어 전남도와 목포시 반영비율도 3대7에서 5대 5로 낮췄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시-교육계, 지역교육 발전 '한마음'

간담회 열고 상호협력 다짐

"타 도시에 비해 고등학교 지원 사업이 부족하다. 특히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장훈택 목사고 교장) "현재 오후 6시까지 실시되는 지역아동센터 돌봄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고 수용인원을 늘려야 한다"(김상국 석현초 교장) "1000만 관광시대를 맞아 아동에서 처럼 목포를 주제로 한 전국 노래자랑을 개최해 전국에 목포 노래가 울려 퍼지길 희망한다"(김재점 목포교육장) 목포시가 최근 지역 유·초·중·고(원)장단을 초청해 가진 '목포교육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간담회' <사진>에서 제기된 건의사항들이다. 이번 간담회는 김종식 시장이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학교와 자치단체 간 상호 이해를 통해 향후 목포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직접 마련한 자리로, 민선 시대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무엇보다 목포시와 교육계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역 교육발전을 향한 상생의 첫 발을 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등하교길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문원길 이로초 교장)', '유달초에 국내 유일의 남한산 호랑이 박제가 있는데 심상초학교 2층에 호랑이 전용 전시관을 설치해 달라(신희봉 유달초 교장)', '친환경 급식과 관련 시정 담당직원이 너무 자주 바뀌어 영양교사들 어려움 호소(양명희 북교초 교장)' 등 다양한 건의사항들이 쏟아졌다. 이 밖에 학교 주변 환경 개선, 청소년 인성교육 필요성, 근대문화거리 학교혁신모델 개발 등의 의견도 개진됐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건넌 사람들은 목포교육청과 상호협력을 통해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마련하고 목포교육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시 올해 23개 기업 2400억 투자 유치

목포시, 전남도 평가 최우수

목포시가 연말을 맞아 사회복지·관광 분야 등에서 수상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투자유치 부문에서도 양호한 성적표를 냈다. 16일 목포시 기업유치실(실장 김의숙)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대양 일반산업단지는 총 165필지(66만3224㎡)가 분양됐고 분양률은 62.09% (11월말 기준)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식료품 22개(김 17), 수산 기자재 7개, 전기통신 11개, 물류 13개, 기타 35개 등 모두 88개 기업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한해에만 국내 최대 종합식품 기업인 대상(주)의 계열사인 (주)정풍을 유치하는 등 23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 총

2427억원의 투자유치와 함께 536명의 고용을 창출한데 이어 33필지(160,572㎡)를 분양하는 광복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를 분양률로 환산하면 15.03% 상당이다. 최근 대양산단과 목포신항이 국가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로 지정되면서 에너지 기업 입주 가속화는 물론 대양산단 조기본양에도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목포시가 올 한해 기대이상의 분양 실적에 거둔 데는 연초부터 '부서별 분양 책임제'를 운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1부서 1사 책임 분양제 운영 결과 13개 부서에서 23필지 10만4952㎡를 분양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1개부서(실과 10, 동 1)가 상업용지 16필지(9만4858㎡)를, 2개부



목포시가 올해 23개 기업 2400억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등 투자유치 부문에서 기대이상의 성적표를 내 전남도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대양산단 전경.

서(동명동, 삼학동)는 지원용지 7필지(1만93㎡)를 각각 분양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목포시가 2019년 전라남도 시·군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전남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실적, 투자유치 여건조성, 투자기업 사후관리 등에 대해 평가한 결과 지난해 장려상에 이어 올해는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항 항로표지 이용자 79% "만족"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장귀표)은 목포항 등 관내 항로표지를 이용하는 선박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79%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로표지란 배가 안전하게 항해하도록

연안이나 항로에 설치한 시설물로 등대, 등표(燈標), 조사등(照燈台) 등을 말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5일부터 11일까지 한달여 간에 걸쳐 선박 종류별 종사자 80명을 대상으로 운영상태와 이용현황

등을 조사했다. 구체적 조사항목은 항로표지 활용도, 항로표지 운영만족도, 항로표지 시인성, 표지시설사업, 장애복구 신속성, 항로표지 배치 적절성, 항로표지 기능성 등 7개이다. 조사결과 항로표지 운영만족도는 80명 중 '만족한다'는 응답이 65명으로 79%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3%포인트

트 낮은 수치다. 또 항로표지 활용도는 지난해보다 10%포인트 낮은 72%로 나타났다. 그 밖에 항목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목포해수청은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 등은 항로표지 운영 및 정책이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안전한 목포 만듭시다"...경찰발전협의회 정기회의



목포경찰서는 지난 11일 경찰서 노적봉 홀에서 제99차 경찰발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경찰발전협의회는 경찰행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제언하고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시민과 경찰이 서로 협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태수 경찰발전협의회장은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방지 등을 위한 시민들의 의

견을 적극 제시하여 목포경찰이 안전한 지역치안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회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근 목포경찰서장은 "목포경찰의 발전에 협력해 주시는 경찰발전협의회장 및 회원들께 감사하다"며 "평화롭고 안전한 지역치안을 위해 경찰발전협의회와 더욱 협력하고 지역 주민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YHB (주) YHB ECO / 주식회사 YHB

'32년 집진기, 슬러지크리너 전문 제조업체'

www.yhbeco.co.kr

원가절감 가공품질향상 직업병예방

산업·공작기계 연/절삭유 탱크

청소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

*** 머시닝센터, CNC선반, 기어가공기, 연삭기 등 수용성 비수용성 절삭유 모두 가능 ***

✂ 절삭유 교체 X
✂ 미세 칩 제거

✂ 연/절삭유 부패방지
✂ 슬러지 약취 제거

제조판매 / 장비렌탈 / 청소대행서비스

광주공장영업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 TEL : (062) 953 - 2995

▶ H-P: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 12차 501호

▶ TEL : (02) 2029 - 6400 ~ 3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전포/무자본 판매하실 분